요지부동 美 협상단…곳곳 파열음

■ 한미 FTA 4차협상 중간점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4차협상이 25일, 일정의 절반을 소화했지만 일부 분과 회의는 논의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으면서 조기 종료되는 등 계속 파열음이 새어 나오고 있다.

우리측은 미국의 상품 시장에 대한 공략을 강화하고 미국측은 우리의 농산물 시장을 집중 요구하는 등 관세 개방안(양허안)을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이 첨예하다.

공산품을 다루는 상품무역 분과는 첫날 오전 회의가 중단되는 등 고전을 거쳤으며 섬유분과는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하루 앞서 회의를 종료했다. 미국이 공산품 분야에서 추가 수정 의향을 밝히고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도입에 합의하는 등 일부 진전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가야할 길이 아직 멀다'는 평가다.

건배는 하지만… 25일 오후 제주 중문단지 신라호텔에서 열린 FTA 오찬 행사에서 한덕수(가운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지원위원회 위원장과 김종훈 한국 수석대표(오른쪽), 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가 건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美, 농산물 개방 파상공세…'개성' 한국産 인정 거부

섬유, 이틀만에 협상 접어…'세이프 가드' 합의 성과

◇**초반부터 감지된 파열음**=4차협상 첫 날부터 양국간 협상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조짐들이 감지됐다.

웬디 커틀러 미측 수석대표는 23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북한의 핵실험은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 인정에 대한 그동안의 미국측 입장을 더욱 확고하게 했다"며 개성공단 생산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달라는 우리 요구에 거부의 쐐기를 박았다.

특히 공산품을 다루는 상품무역 분과의 경우 첫날 오전부터 회의가 중단되는 소동을 빚었다. 이에 따라 상품무역 분과 회의가 파행을 겪였으나 미국이 1천개 전후 품목을 추가로 조정할 의사를 제시하면서 이튿날인 24일 회의가 속개됐다.

그러나 추가 조정안도 자동차 등 한국의 관심품목을 '10년 이상 또는 기타' 품목으로 분류해 우리 협상단을 실망시켰다.

양측은 협상장에 마주 앉아봤자 소용이 없다는 판단으로 하루 일찍 회의를 끝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섬유 세이프가드 도입을 적극 검토하다가 이 역시 논의를 중단했다.

◇**주요 쟁점 '평행선'…연내 타결 난망**=한미FTA가 당초 제시된 일정대로 타결될지 여부를 가르는 분수령인 무역구제 분야 등 쟁점 사항을 둘러싼 논의도 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무역구제는 미국이 '무역촉진권한법'(TPA)을 통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면 180일 이내에 의회에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TPA 시한이 내년 6월말로 끝나기 때문에 한미FTA 협상이 제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내에 마무리돼야 한다.

그러나 아직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이다. 우리측은 법률 개정이 불필요할 수도 있는 사항 등 14가지의 절차 개선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반덤핑 등 제도 개선은 FTA 협상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울러 저작권 보호기간과 특허 출원의 공개 여부 등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입장 차이도 여전하고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 등을 둘러싼 이견은 평행선을 긋고있다. 이에 따라 연내 협상 타결은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다.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 도입 합의 등은 성과**=협상이 전반적으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지만 농산물 특별세이프 가드 도입 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 등 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협상에 응하면서 수입산 농산물이 급증할 경우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라는 완충장치가 도입되면 개방안 수준을 좀더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세웠던 만큼 세이프가드 논의의 진전은 농업 분야의 관세 개방안 협의에도 가속도를 붙여줄 전망이다. /연합뉴스

■ 최 前대통령 '국민장' 어떻게 치르나

경복궁 앞 뜰 발인…대전 국립현충원 안장

정부는 최규하 전 대통령의 국민장을 26일 오전 서울대 병원 발인제에 이어 경북궁 앞뜰 영결식,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식 등 순으로 엄수키로 25일 최종 확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발인제는 최 전 대통령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에서 유족과 장의위원회 간사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며 이어 경북궁 앞뜰에서 전현직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 정당대표 등 각계인사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결식이 엄수될 예정이다.

영결식은 오전 10시 개식을 알리는 조악에 이어 국민의례, 고인에 대한 묵념, 장의집행위원장인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고인 약력보고, 장의위원장인 한명숙 국무총리의 조사, 불교와 기독교, 천주교 순의 종교의식 순으로 진행된다.

종교의식이 끝나면 생전영상을 3분 가량을 방영한 뒤 조악대의 조곡속에 상주와 직계가족, 장의위원장의 헌화 의식이 있을 예정이다.

이어 박정원 한양대 교수가 '청산에 살리라'를 조가로 부를 예정이다. 또 삼군 조총대원 7명이 21발을 발사하는 조총 의식을 거행한 뒤 영결식은 종료된다.

영결식이 끝난 뒤 최 전 대통령와 홍 기 여사의 유해를 실은 영구차 2대가 경북궁 동문-동십자각-광화문-세종로터리-남대문-서울역-삼각지-반포대교-경부고속도로를 거쳐 안장식이 거행될 국립대전현충원에 도착하게 된다. /연합뉴스

최규하 전 대통령의 국민장이 26일 서울 경복궁 앞뜰에서 예정된 가운데 25일 서울 광화문의 수문장 너머에서 관계자들이 영결식 준비를 하고 있다.

"북핵해결, 北이 나를 활용했으면"

반기문 차기 유엔총장 서울대 특강

차기 유엔 사무총장으로 내정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25일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면 직접 방북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반 장관은 이날 '유엔 사무총장 진출과 한국의 세계화'를 주제로 마련된 서울대 사회대 초청 특강에서 "안보리 제재와 6자회담 속개 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사무총장으로서 특사를 임명해 협의를 시작하고 필요하면 북한을 직접 방문해 협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역시 나의 사무총장 선출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안다"며 "북한이 나를 최대한 활용해 빠른 시일내에 핵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선택을 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 장관은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대한 입장과 관련, "현재 한국이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파병한 상황에서 이라크가 하루 빨리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재건을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9세기 日 지도에 '독도는 한국땅'

귀화 일본인, 호사카 유지 교수

고지도 사본 2점 독도박물관 기증

독도가 한국 영토였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료를 발굴해온 호사카 유지(保坂祐二.50) 세종대 교수는 일본 메이지 정부가 독도를 시마네현에 강제 편입시키기 전 독도를 한국 땅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고지도 사본 2점을 경북 울릉도 독도박물관에 기증했다고 25일 밝혔다.

호사카 교수가 기증한 사본은 1992년 무사인 스즈키 게이사쿠(鈴木敬作)가 제작한 '조선국전도'(朝鮮國全圖)와 1893년 오스가 류타쿠(大須賀龍潭)가 편집한 '대일본전도'(大日本全圖)이다.

호사카 교수는 "조선 지도인 조선국전도에는 죽도(竹島·다케시마)로 표기된 울릉도와 송도(松島·마쓰시마)로 표기된 독도가 포함돼 있는 반면 일본 영토를 그린 대일본전도에는 독도와 울릉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는 19세기 일본인이 독도를 조선 땅으로 보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한국인과 결혼해 2003년 한국인으로 귀화, 세종대에서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는 호사카 교수는 독도 표시가 없는 시마네현 지도와 일본 국토지리원 지도 등 독도가 조선 영토였음을 증명하는 일본 고지도를 공개해 왔다. /연합뉴스

무너지는 美 공화 "남부 저지선을 구축하라!"

지난 12년간 미국 의회를 장악해온 공화당의 방어벽이 무너지고 있다. 24일 현재 11.7 중간선거의 판세는 하원의 경우 이미 민주당이 대세를 장악했고, 격차를 좁히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됐던 상원마저도 민주당이 탈환을 넘보는 박빙의 시소게임을 벌이고 있다.

◆**공화당 고전 이유**=무엇보다 이라크전 후유증이 최대 원인으로 꼽힌다. 게다가 막판에 터져 나온 북한의 미사일 및 핵 실험과 이란의 핵프로그램 논란과 알카에다 조직원들의 끊임없는 테러활동 등이 안보 불신까지 초래했다.

뉴스위크가 지난 19~20일 미국 성인남녀 1천명을 상대로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5%의 지지율을 기록한 반면, 공화당은 37%를 얻는데 그쳤다.

◆**상원 승부, 공화 남부 3각 저지선 구축이 관건**=매클래치 신문과 MSNBC가 24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공화당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미주리, 몬태나,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로드아일랜드 등 5개 주는 사실상 민주당 쪽으로 넘어갔다.

민주당이 다수당의 위상을 갖기 위한 6석을 확보하기 위해선 공화당의 박빙우세 지역인 테네시와 버지니아주 중 한곳에서 무조건 승리해야 한다. 때문에 공화당은 이른바 남부 2개주에서 저지전을 구축하느냐가 승리의 관건인 셈이다.

◆**하원, 민주당 과반확보 무난할 듯**=하원은 이미 대세가 민주당쪽으로 기울었다는게 미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전체 435개 선거구 가운데 88%에 해당하는 381개는 이미 당선 확정 상태로 보고 있다. 이들 중 민주당은 다수당 장악에 필요한 15석 추가를 상회하는 성적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채희종기자 chae@